

# 가정교과목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의견연구

## - 재학 중인 학교별 차이비교 -

### Comparisons of High School Students' Perspective on Home Economics

김인숙 · 임진희 · 한미선 · 최종명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Kim, In sook · Lim, Jin hee · Han, Mee sun · Choi, Jong myo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Seowon Univ.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some directions to enhance high school students' recognitions for the necessity of Home Economics(HE) education. 309 respondents were sampled from boys', girls' and co-ed high schools in Chongju.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some items about the respondents' interest, necessity, and the required level for HE.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Students from girls' high school and co-ed high school showed more interest in HE than did the students from boys' high school. 2) The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for learning HE in high school was significantly differed according to the school systems. 3) The demand level on HE was 52.8 out of 100 point, which is fairly low. Girls from co-ed high school showed higher demand on HE than did the girls' high school. 4) The highest demand level of students in the detailed domains of HE was on consumption. And the students showed a comparatively high demand on health, job, and consumption, while showing low demand on clothing. 5) Students from boys' high school and co-ed high school favored practice-oriented HE education.

#### I. 서론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여성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 이러한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들도 점차 달라지게 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성역할기대에 대해 많은 비판과 수정이 가해지고 있다. 그 결과 가정은 남녀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조직체라는 인식이 강해졌고, 남녀의 역할구분에 대한 고정관념을 부정하려는 노력이 따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대사회에서는 주부의 사회진출에 따른 역할 분담의 변화가 부분적으로나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추세에 있고, 남녀모두에게 가정경영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각 가정마다 독

창적인 남녀역할 분담과 운영이 가능하다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사회 및 가정생활의 변화는 학교교육 및 여성교육에도 영향을 주어 기독교 여선교사들에 의해 제도화된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처음 가정과 교육이 실시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제 1차 교육과정(1955년)부터 제 4차 교육과정(1988년)까지 실업·가정교과명으로 가정교과목을 여학생에게만 실시하여 왔다. 그러다 제 5차 중학교 교육과정(1989)에서는 기술·가정교과목을 신설하여 기술, 가정 및 기술·가정 중 한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성별에 따른 차별적 이수에서 탈피하여 남녀공용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제 6차 교육과정(1995년)부터 남녀 중학생 모두에게 가정과목은 필수로 부

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종래 거의 여학생 위주로 이루어져 오던 가정교과교육이 뚜렷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라는 생활의 장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여성 혼자만이 아니라 남성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 채 실시되어 오던 그동안의 가정과 교육이 안고있던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듯 가정과 교육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생활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sup>1)</sup>으로써 개인과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크게 요청되고 있어 가정과 교육은 남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정규과정으로서의 가정과 교육의 목표는 개인의 존엄을 중히 여기며, 진리와 평화를 희구하는 인간의 육성을 기하기 위한 교육 현장의 이념 구현에 두지만, 인간의 성장 발전의 조건으로서 실제생활에 적용하여 자발성, 창조성, 사회성을 함양하며 가정생활과 지역사회 의 충실향상과 인간의 복지에 주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는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가정과 교육과정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여성 교양 교육적 성격을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1995년부터 중학교에서 독립교과로서 남녀학생 모두에게 필수과목으로 가르치게 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교육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현재까지 유지해 온 가정교과 교육방법에 대해 일련의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따라 본 연구는 체계

적인 검토노력의 일환으로 현 시점에서 가정과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고등학교 여학생과 한번도 가정과 교육의 기회를 접해보지 못한 고등학교 남학생을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가정과 교육에 대한 필요성 및 내용에의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대상으로 청주시내 여학교와 남학교, 그리고 남녀공학 학교별로 살펴봄으로써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상황별로 차별화된 가정과 교육의 시행가능성을 함께 타진해 보았다. 이와 같은 노력은 앞으로 가정과 교육이 점차 남자 고등학생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실시되었다.

## II.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는 크게 조사대상을 남학생으로 하였거나 남학생을 포함시킨 연구와 가정교과목의 세부내용을 중심으로 요구수준을 파악한 연구를 고찰하였다.

먼저 김은주(1984)는 서울시내 상업계와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가정과 학습내용에 대한 관심도를 분석하였는데, 이들의 관심도는 가정과 학습의 영역과 가정의 생활수준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이연숙, 1994에서 재인용). 고현숙·김기남(1989)은 전남도내 여자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과라고 느끼고 있으며, 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학습내용을 학습하기를 요구하고, 실습중심으로 학습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정교과를 중요하게 여기며 가정과목에 기호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학습내용의 실생활에의 활용도도 높았다고 보고하였다(성화경, 1994에서 재인용). 노효일(1990)이 수행한 인문계 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가정 및 가사과목에 대한 학습요구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가정의 학습요구도가 가사에 비하여 높고, 남녀공학 학생들이 가정, 가사 모두에서 요구도가 높다고 하였다(성화경, 1994에서 재인용).

기술·가정을 통해 가정교과를 배운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현자(1991)의 연구결과 가정과를 이수한 남학생들은 대부분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했으며, 과반수가 가정과목을

1) 이종이(1995)는 가정교과교육의 일반적 성격을 목적, 대상, 방법, 내용, 시기에 따라 전통적 관점과 새로운 관점의 차이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전통적 관점에서의 강조점은 현도양치 양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여학생을 대상으로 가정생활에 관한 단순지식과 기능, 주부중심의 가사운영과 관리능력 양성을 위한 내용을 단순 기능 습득 위주로 교육하며, 1880년부터 4차 교육과정 개정까지를 그 시기로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관점에서의 강조점은 자주적 생활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남녀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가족원의 인성교육, 가족원의 역할분담을 통한 가사운영 및 관리능력 양성을 위한 내용과 진로개발을 위한 내용을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양성 위주로 교육하며, 5차 교육과정 개정이후부터 현재까지를 그 시기로 한다고 하였다.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학생들에게 가정교과를 이수케 함으로써 가사작업에 대한 태도와 흥미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여진다(은성숙 등, 1992에서 재인용)고 하였다. 그리고 은성숙 등(1992)은 가정교과 이수집단이 가정교과 모든 내용에 대해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조사 대상 남학생들이 가정교과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가정교과 내용에 많은 내용을 첨가해서 배우고 싶다고 응답하였다고 하였다. 이애숙(1994)은 문교부가 지정한 실험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과 교과목의 일반화 가능성을 연구한 결과 남학생의 가정과 교과에 대한 흥미, 수용태도, 인식정도는 여학생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면서, 남녀 성역할 구분이 없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이은정(1992)은 서울 시내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영역별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남녀학생과 학부모 모두 가정과 교육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는데,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가정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더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영역별로는 가사 기술적인 면보다도 정신적, 사회적 분야를 더 중시하고, 환경문제, 에너지와 물자절약, 컴퓨터 활용 등의 요구도가 높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 내용이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임애용 등(1994)에 따르면 고등학교 남학생에 대한 가정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91.8%나 되었으며, 여기서 고등학교 남학생에 대한 가정과 교육은 매우 필요하고, 실제 교육시에는 아동양육과 가족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달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김계순(1993)은 6차 교육과정에 대한 남녀학생의 학습요구도를 분석하였는데 요구도가 높은 영역으로는 자신에 맞는 옷차림, 간식만들기, 청소년기 발달특성과 성교육등 자신들과 관련 있는 내용들이었고, 성별에 관계없이 가정과목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내용구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성화경, 1994에서 재인용). 그리고 류상희 등(1993)의 서울시와 경남지역의 중학교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김순애(1990)의 중학교 1학년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별, 거

주지역, 기술, 가정과목의 이수여부에 따라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연숙, 1994에서 재인용).

이 외에 최근의 가정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로는 식생활, 의생활(성화경, 1994), 가정관리(이연숙, 1994) 영역에 대한 것이 있고, 주생활 영역에 대한 연구(이강분 등, 1994), 중학교 주생활 교육에 대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이은순, 1992)와 교육내용의 농촌지역 적합성에 관한 연구(유미숙, 1988)가 있다(이강분 등, 1994에서 재인용). 그리고 가정교과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sup>2)</sup>이 있었다.

이상 살펴본 결과 가정 교과목에 관한 필요성 및 내용요구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재학 중인 학교의 종류별로 의견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녀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종류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정 교과목에 대한 의견을 증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는 점<sup>3)</sup>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III.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청주시내 고등학교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시내 소재 고등학교 중 남학교(세광고), 여학교(일신여고), 그리고 남녀공학(금천고)을 각각 1개교씩 임의선정하여 각 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생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해당교의 교사의 협조로 2학년에서 각각 3개반씩 추출하여 반원전체에게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회수된 조사표 중 기재가 부실한 조사표를 제외한 309부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배경을 묻는 문항, 가정교과목에 대한 인식정도를 재기 위한 문항, 가정교과목에서 다루는 세부영역에 대한 요구도에 관한 문항과 조사대상자가 가정교과목에 대하여 바라는 사항을 알기 위한 문항으

2)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종이(1995)를 참조할 것.

3) 연구자는 '남녀고등학생의 가정과목 요구도에 관한 연구, 서원대학교(미간행)'에서 남녀학생의 성별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별로 의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하여 성별 차이검증 결과를 참고로 제시하고자 함.

로 구성하였다.

여기서 가정교과목에서 다루는 세부영역에 대한 요구도를 묻는 문항은 9개 영역으로 나누어 총 82개 문항으로 하였으며, 각각의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를 내적일치도에 의하여 크론바하  $\alpha$  계수로 검증한 결과(표 1), 신뢰도 계수는 문항수가 매우 적은 교양생활을 제외하고는 모두 0.7 이상으로 척도로서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표 1> 조사도구의 신뢰도 계수

세부영역	문항수	Cronbach's $\alpha$
가족관계와 생활설계	10	0.8265
아동발달과 부모역할	8	0.8570
가정자산의 관리	5	0.7101
소비생활	5	0.8235
식생활	20	0.8963
의생활	14	0.8868
주생활	13	0.8647
직업생활	6	0.8100
교양생활	2	0.4817

이와 같은 도구는 먼저 선행연구 논문(이은정, 1992; 임애용 등, 1994)과 중고등학교 가정 및 가사교과서 등을 참고하여 기본문항을 작성한 다음,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하여 설문지를 확정하였고, 조사시간은 1995년 5월 18일부터 5월 26일까지로 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PC+를 이용하여 대상학생의 배경 및 전체적인 경향에 관한 백분율 및 평균값을 구하였고, 대상학생들이 재학중인 학교별 차이를 보기 위하여  $\chi^2$  검정과 F 검증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고찰

### 1. 조사대상학생의 일반적인 사항

조사대상학생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면(표 2), 먼저 성별 구성은 남학생이 46.9%, 여학생이 53.1% 였으며, 학교별로는 여고생이 37.2%, 남고생이 31.7%, 그리고 남녀공학 재학생이 31.1%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학생의 가정은 가족수가 4~5명인 경우(57.9%)와 어머니 연령이 40대(80.2%)가 가장

많았고,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 43.7%, 중졸이 33.8%로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을 보면 농수축산 및 단순노동직이 4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서비스업과 행정 및 사무관리직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수입활동을 하는 가구가 40.9%로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는 더 적었다.

<표 2> 조사대상학생의 일반사항

N=309		
변수	구분	N (%)
성별	남	145 (46.9)
	여	164 (53.1)
학교별	여고생	115 (37.2)
	남고생	98 (31.7)
	남녀공학	96 (31.1)
가족수	3명 이하	13 (4.2)
	4~5명	179 (57.9)
	6~7명	103 (33.3)
	8명 이상	14 (4.5)
어머니 연령	30대	32 (10.7)
	40대	239 (80.2)
	50대	27 (9.1)
어머니 학력	국졸 이하	42 (13.9)
	중졸	102 (33.8)
	고졸	132 (43.7)
	대졸 이상	26 (8.6)
아버지 직업	전문기술직	34 (11.7)
	행정·사무관리직	101 (34.8)
	서비스업	113 (39.0)
	농수축산·단순노동	132 (43.7)
	무직	38 (13.1)
어머니 직업유무	있	122 (40.9)
	없거나 주부	176 (59.1)

### 2. 가정교과목에 대한 관심 정도

학교별로 고등학생들의 가정교과목에 대한 관심정도를 보면(표 3), 여고와 남녀공학에 재학중인 학생에게서 관심이 '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각각 73.7%, 68.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남고에 재학중인 학생은 44.4%로 낮게 나타났다. 여기서 남녀공학에게서 관심이 '매우 많은 편'이라는 응답이 15.6%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다소 흥미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이를  $\chi^2$  검증한 결과 대상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어떤 학교에 재학중인가에 따라 가정교과목에 대한 관심정도는 매우 다르

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직업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3> 가정교과목에 대한 관심 정도

내 용	N(%)			
	여고생	남고생	남녀공학생	계
매우 많은 편	12 (10.5)	9 ( 9.3)	15 (15.6)	36 (11.7)
조금 있는 편	72 (63.2)	34 (35.1)	51 (53.1)	157 (51.1)
거의 없는 편	24 (21.1)	40 (41.2)	21 (21.9)	85 (27.7)
전혀 없는 편	6 ( 5.3)	14 (14.4)	9 ( 9.4)	29 ( 9.4)
계	114 (100.0)	97 (100.0)	96 (100.0)	307 (100.0)

$\chi^2 = 24.1649^{***}$  df=6  $*** P<0.001$

3. 가정교과목의 목표 인식

'가정교과목의 교과목표는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를 알아본 결과 (표 4), '가족 생활 및 가족에의 올바른 가치관 함양'에 51.0%가 응답하였고, 다음이 '의식주, 육아 등의 생활기술에 관한 기초지식과 기능의 습득'이 23.4%로 나타나 대체로 가정생활에서 요구되는 내용과 실제로 가정교과목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표 4> 가정교과목의 교과목표에 대한 의견

내 용	N(%)			
	여고생	남고생	남녀공학생	계
가정생활·가족에의 올바른 가치관 함양	45 (41.7)	52 (59.1)	49 (54.4)	146 (51.0)
생활기술의 기초지식과 기능 습득	33 (30.6)	16 (18.2)	18 (20.0)	67 (23.4)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	23 (21.3)	12 (13.6)	11 (12.2)	46 (16.1)
미래사회의 변화에의 적응능력 함양	4 ( 3.7)	4 ( 4.5)	6 ( 6.7)	14 ( 4.9)
기본적인 생활예절 습득	3 ( 2.8)	4 ( 4.5)	6 ( 6.7)	13 ( 4.5)
계	118 (100.0)	88 (100.0)	88 (100.0)	286 (100.0)

$\chi^2 = 12.5399^{NS}$  df=8

여기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이라는 응답도 16.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있는데, 이는 직업교육으로서의 가정교과목에 대한 역할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점차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이를 보다 합리적이면서 바람직하게 도와줄 수 있는

4. 가정교과목 이수필요성에 대한 의견

'가정교과목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표 5), 여고와 남녀공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각각 75.4%와 67%로 비교적 높은 반면 남고 재학생은 45.4%로 낮은 응답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 남고 재학생의 경우 그동안 한 번도 가정교과목을 접해 볼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결과 역시 가정교과목의 이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chi^2$  검증결과 대상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어떤 학교에 재학중인가에 따라 가정교과목에 대한 이수필요성의 인지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sup>5)</sup>.

이번에는 '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 그 이유를 알아 본 결과(표 6),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가 44.7%로 가장 많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다음이 '사회의 산업화로 가정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므로'와 '가족원 모두에게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하여'가 각각 21.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학중인 학교별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4) 이에 대해 남녀학생의 성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 '관심이 있는 편'이라는 응답이 남학생은 53.5%, 여학생은 71.1%였으며,  $\chi^2$  검증결과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5) 이에 대해 남녀학생의 성별차이를 비교한 결과 '배울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남학생은 49.3%, 여학생은 75.5%였으며,  $\chi^2$  검증결과 집단간에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5> 가정교과목 이수필요성에 대한 의견 N(%)

내 용	여고생	남고생	남녀공학생	계
배울 필요있다	86 (75.4)	44 (45.4)	63 (67.0)	193 (63.3)
배울 필요없다	28 (24.6)	53 (54.6)	31 (33.0)	112 (36.7)
계	114 (100.0)	97 (100.0)	94 (100.0)	305 (100.0)

$\chi^2 = 21.2228^{***}$  df=2  $P < 0.001$

히려 과목의 필요성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알 수 있어 학문으로서의 가정교과목의 위상정립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5. 가정교과목 세부영역에의 요구도와 영향변수와의 관계

조사대상 학생의 가족적 특성에 따라 가정교과목의 9개 세부영역별 요구도를 살펴보면

<표 6> 가정교과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N(%)

내 용	여고생	남고생	남녀공학생	계
사회산업화로 가정의 중요성 증대	11 (15.7)	8 (27.6)	13 (24.5)	32 (21.1)
가족원에게 올바른식과 태도함양	10 (14.3)	7 (24.1)	15 (28.3)	32 (21.1)
가정생활의 질적향상에 도움되도록	36 (51.4)	11 (37.9)	21 (39.6)	68 (44.7)
자신의 진로계획에 도움되도록	13 (18.6)	3 (10.3)	4 (7.5)	20 (13.1)
계	70 (100.0)	29 (100.0)	53 (100.0)	152 (100.0)

$\chi^2 = 9.1287^{NS}$  df=6

< 표 7 > 가정과목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N(%)

내 용	여고생	남고생	남녀공학생	계
가정생활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음	17 (68.0)	25 (59.5)	21 (84.0)	63 (68.5)
입시에서 중요하지 않은 과목	6 (24.0)	12 (28.6)	2 ( 8.0)	20 (21.7)
실습을 위해 노력이 많이 따름	2 ( 8.0)	5 (11.9)	2 ( 8.0)	9 ( 9.8)
계	25 (100.0)	42 (100.0)	25 (100.0)	92 (100.0)

$\chi^2 = 4.8594^{NS}$  df=4

'이수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 그 이유를 보면(표 7),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정생활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으므로'라는 응답이 68.5%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교과목이라는 명칭에서 기인하는 결과로 여겨지며, 다음으로는 '입시에서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므로'가 21.7%로 나타나 현행 교육제도로부터 비롯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질문에 대한 응답 중 '남성에게 별로 필요치 않은 내용이므로'에 응답한 학생은 한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남학생도 가정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루어 가는 생활의 장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추측되며, 실생활과 지나치게 밀접한 과목이라는 점이 오

(표 8), 어머니의 연령<sup>6)</sup>에 따라 가정자원의 관리와 주생활 영역은 5% 유의수준에서, 직업생활과 교양생활은 10%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sup>7)</sup>은 식생활 영역에서만 10%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가족수<sup>8)</sup>는 가정자원의 관리영역과는 1% 수준에서, 소비생활 영역과는 10% 수준에서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아버지의 직업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가정교과목의 세부영역은 하나도 없었고, 어머니의 직업유무<sup>9)</sup>는 가족관계와 생활설계 영역

6)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세부분석 결과 가정자원의 관리에 대한 요구도는 어머니의 연령이 50대 이상인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30대, 40대의 순이었고, 주생활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직업생활에 대한 요구도 역시 50대 이상, 30대, 40대의 순이었으나, 교양생활의 경우에는 30대가 가장 높고, 다음이 40대, 50대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7) 식생활 영역에 대한 요구도와 어머니의 학력과의 관계에서는 고졸이 가장 높고, 다음이 국졸, 중졸, 대졸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8) 가족수와 가정자원의 관리영역에 대한 요구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가족수가 8명 이상인 집단에서 요구도가 가장 높고, 다음이 6~7명, 4~5명, 3명 이하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비생활 영역에 대한 요구도는 역시 8명 이상, 6~7명이 많았는데, 그 다음으로는 3명 이하, 4~5명의 순으로 높아 약간 다른 결과를 보였다.

9) 어머니의 직업유무별로는 가족관계와 생활설계, 아동발

과 5% 수준에서, 아동발달과 부모역할 영역 및 식생활 영역과 10%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면 약 52.8점 수준으로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었다. 대상별로는 남녀공학의 여학생이 가장 높은 반면, 여고생의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

<표 8> 가정교과목 9개영역과 영향변수와의 관계 (F 값)

구 분 \ 변수	모 연령	모 학력	모직업유무	부 직업	가족수
가족관계와 생활설계	0.0288	0.5571	3.9528**	0.1829	1.3705
아동발달과 부모역할	0.1922	1.2233	3.3777*	1.0609	1.5491
가정자원의 관리	3.5974**	1.7414	2.0916	0.3496	4.2048***
소 비 생 활	2.0175	0.7897	0.7280	0.3004	2.4586*
식 생 활	0.8831	2.6299*	3.0082*	1.3438	1.3380
의 생 활	1.1660	0.4204	2.9285	0.3913	0.5763
주 생 활	3.4499**	0.3395	1.9960	1.0199	0.6843
직 업 생 활	2.4174*	0.4403	0.0500	0.8756	0.8983
교 양 생 활	2.5819*	0.8150	0.2476	0.6339	0.7141
총 계	1.4504	0.7496	3.6869	0.5572	1.2846

\*\*\* P<0.01    \*\* P<0.05    \* P<0.10

< 표 9 > 대상별 학생들의 가정교과목 9개 영역에 대한 요구도

구 분	전체평균	여고생	남고생	남녀공여	남녀공남	F 값
N (%)	309(100)	115(37.2)	98(31.7)	49(15.9)	47(15.2)	
가족관계와 생활설계	3.30	3.28	3.21	3.42	3.21	1.3852
아동발달과 부모역할	3.22	3.14	3.09	3.44	3.15	3.2558**
가정자원의 관리	2.69	2.58	2.62	2.76	2.77	1.7836
소 비 생 활	3.07	3.19	2.79	3.18	2.99	7.5932***
식 생 활	3.38	3.35	3.36	3.53	3.31	1.3358
의 생 활	2.73	2.65	2.72	2.77	2.93	2.1147*
주 생 활	3.04	2.94	2.94	3.03	3.13	1.0187
직 업 생 활	3.80	3.12	3.12	3.26	3.19	0.6079
교 양 생 활	2.83	2.77	2.82	3.04	2.69	2.3400*
계	255.37	254.33	256.04	267.23	262.75	1.1319
100점 만점 환산표준점수 <sup>1)</sup>	52.75					

\*\*\* P<0.01    \*\* P<0.05    \* P<0.10

주) (총점수-가능최저값)/(가능최대값-가능최저값)\*100 으로 계산함.

다음 <표 9>는 조사대상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종류별 및 성별을 묶은 대상별로 가정교과목 세부영역에 대한 요구도를 정리한 결과 <표 9>, 조사대상 학생들의 가정교과목에 대한 요구도는 100점 만점 표준점수로 환산하

다. 여기서 여고생의 경우 남학생보다도 더 낮게 나타난 점은 그동안 여학생에게만 한정하여 실시해 온 가정교과목에 대하여 새롭게 느끼게 되는 기대감이나 흥미도가 다소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져 교수 내용 및 방법에 다양한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세부영역별로 보면 소비생활이 1% 수

달과 부모역할 및 식생활 영역에서 모두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가 없거나 주부인 경우에 비해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준에서 대상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고생이 가장 높고, 다음이 남녀공학의 여학생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여학생의 경우 자신의 가정을 운영할 때 물건을 직접 구입할 기회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발달과 부모역할 영역은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남녀공학의 여학생의 경우가 가장 높고, 다음이 남녀공학의 남학생, 여고생과 남고생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특성변수와는 전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의생활 영역은 10% 수준에서 대상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남녀공학의 남학생이 가장 높고, 다음은 남녀공학의 여학생, 남고생, 여고생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남녀공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자기 표현과 관련하여 함께 공부하는 다른 성의 학생을 직접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요구도를 보인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교양생활 영역은 남녀공학의 여학생이 가장 높고, 같은 학교의 남학생의 경우가 가장 낮은 요구도를 보이고 있었다.

대상별 학생들의 가정과목 세부항목에 대한 요구도에서는(표 10), 먼저 조사대상 학생 전체의 전반적인 경향은 질병예방과 대책, 질병과 영양, 임신과 분만, 진로계획, 가족의 영양, 가정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가정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역할, 소비자 정보의 활용, 소비자 보호, 소비자 문제해결, 진로선택의 과정을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남학생은 청소년기 발달의 특성, 부모됨의 의미, 직업관, 생활예절의 항목을 중요하다고 하였다. 여기서 남녀 고등학생은 자신의 건강관련 항목과 직업관련 항목, 그리고 소비생활 관련 항목에 대하여 높은 요구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옷만들기, 의복의 의미, 실과 옷감, 섬유의 종류, 의복구성의 기초 및 기성복의 마름질과 바느질 평가 등 대체로 의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항목의 요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옷만들기의 경우는 요즘 학생들이 이미 상품화되어 있는 기성복을 사서 입을 경향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소비생활 영역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은 점과 관련지어 본다면 학교에서는 직접 옷만들기를 지도하기 보다는 기

성복의 구입요령에 관한 부분이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별로 가정교과목 세부항목에 대한 요구도를 보면 가족관계 및 생활설계 영역에서는 가족생활주기와 발달과업 및 가족관련 법규항목이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가족형태는 전반적인 요구수준은 낮으나 대상간에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가족생활주기와 발달과업 항목에의 요구수준이 남녀공학의 남녀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난 것은 가정에서의 남녀역할에 대한 이해가 학교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고, 가족관련 법규에 대해 남녀공학의 여학생과 여고생에게서 높은 요구수준을 보이는 것은 여성의 지위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가족형태에 대해서는 특히 여고생과 남녀공학의 여학생에서 낮게 나타나 있는데, 한국적 가족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아동발달 및 부모역할 영역에 대한 요구도를 보면 아동발달의 특징 및 질병예방과 대책 항목이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아동의 사회화와 가정, 아동발달의 원리, 임신과 분만 항목이 5% 수준에서 각 대상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런데 임신과 분만, 질병예방과 대책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대체적으로 남녀공학의 여학생에서 가장 높고, 다음이 남녀공학의 남학생이 높은 요구수준을 보이고 있어, 가정교과목의 특성상 가정의 기본구성원이 되는 남녀가 함께 학교생활을 한다는 것이 주요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다음 가족자원의 관리 영역에서는 가정자원의 개념과 활용 항목이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자원관리 환경문제 항목이 1% 수준에서, 그리고 가정관리의 의의와 가정관리의 과정 항목이 10% 수준에서 각 대상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여기서는 대체적으로 남녀공학의 남학생이 가장 높은 요구수준을 보여서 다른 영역과 다소 다른 결과였고, 가정관리의 의의와 가정관리의 과정 항목은 조사대상 중 남고생이 가장 낮은 요구수준을 보였다.

소비생활 영역은 소비자 보호가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소비자 문제의 해결 항목은 1% 수준에서, 가정경제의 계획과



<표 10> 대상별 학생들의 가정교과목 세부항목에 대한 요구도

구분	세 부 항 목	여고생	남고생	남녀공여	남녀공남	F 값	전체평균
가족 관계	가족의 정의	3.49	3.44	3.29	3.40	0.4115	3.43
	가정생활의 중요성	4.04	3.93	4.15	3.87	0.7762	4.00
	가정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역할	4.03	3.78	4.04	3.83	1.4099	3.92
	청소년기 발달의 특성	3.99	3.89	4.00	3.61	1.7998	3.90
	가족의 형성 및 가족구성원의 역할	3.54	3.60	3.65	3.46	0.3402	3.57
생활 설계	가족생활주기와 발달과업	2.96	2.95	3.55	3.23	5.0085***	3.09
	가족복지	3.46	3.56	3.69	3.53	0.6273	3.54
	가족관련 법규	3.53	3.21	3.88	3.30	4.7120***	3.45
	가족관계와 의사소통	3.31	3.40	3.39	3.62	0.8353	3.40
	가족형태	2.72	3.12	2.91	3.28	4.4102**	2.96
아동 발달	아동관의 변천	2.89	2.98	3.12	3.26	1.5701	3.01
	아동의 사회화와 가정	3.22	3.18	3.69	3.30	2.7869**	3.30
	아동발달의 원리	3.14	3.13	3.67	3.32	3.2480**	3.25
	아동발달의 특징	3.34	3.22	3.92	3.62	5.1258***	3.44
부모 역할	부모됨의 의미	3.64	3.79	3.96	3.85	1.1499	3.77
	입신과 분만	4.23	3.89	4.29	3.70	4.6007**	4.05
	질병예방과 대책	4.19	3.98	4.41	3.74	5.2000***	4.09
가족 자원 관리	정상발달의 이상	3.55	3.62	3.90	3.72	1.4598	3.66
	가정관리의 의의	3.08	2.82	3.12	3.21	2.1354*	3.02
	가정관리의 과정	3.12	2.83	3.16	3.23	2.4833*	3.05
	가정자원의 개념과 활용	2.75	3.16	3.19	3.45	7.0642****	3.06
	자원관리 환경문제	3.11	3.54	3.65	3.30	4.3227***	3.36
소비 생활	자신의 시간 및 일 관리	3.62	3.77	3.69	3.47	0.9844	3.66
	가정경제의 계획	3.67	3.21	3.65	3.38	3.6386**	3.47
	구매의 원리 구매 의사결정	3.45	3.10	3.39	3.34	1.9187	3.31
	소비자 보호	3.99	3.31	4.00	3.64	9.5666****	3.72
	소비자 정보의 활용	4.03	3.64	4.04	3.85	3.6376**	3.88
식 생 활	소비자 문제의 해결	3.93	3.49	4.10	3.66	5.4347***	3.78
	가족의 영양	4.04	3.96	4.18	3.91	0.7620	4.02
	질병과 영양	4.11	3.97	4.38	3.81	3.2077**	4.06
	인체의 생리와 영양소	3.63	3.85	3.86	3.47	1.8793	3.71
	식품의 조리과 성분변화	3.27	3.43	3.59	3.59	1.2797	3.42
	식품의 가공과 저장	3.42	3.10	3.41	2.96	3.5928**	3.25
	식량자원과 환경	3.07	2.93	3.20	3.19	1.1990	3.07
	식사계획	3.34	3.22	3.37	3.30	0.3232	3.30
	상차림 식사에절	3.51	3.30	3.38	3.45	0.7782	3.41
	청소년기 영양의 특성	3.60	3.86	3.80	3.51	1.8934	3.70
	기초식품군	3.38	3.45	3.41	3.19	0.6511	3.38
	청소년기의 식습관과 영양문제	3.44	3.67	3.83	3.38	2.6404**	3.57
	식품계량의 필요성과 방법	3.07	3.39	3.27	3.40	2.1021*	3.25
	조리기구의 사용법	3.26	3.20	3.35	3.37	0.3594	3.27
	밥, 빵을 이용한 음식만들기	3.64	3.37	3.84	3.61	2.1273*	3.58
식품의 선택 다루기 보관	3.44	3.49	3.90	3.59	2.3215*	3.55	
활	기본적인 조리방법	3.79	3.57	4.10	3.50	3.8959***	3.73
	반찬만들기	3.70	3.52	4.04	3.28	4.2650***	3.63
	하루식단작성 및 하루식사평가	3.03	3.35	3.29	3.17	1.6793	3.21
	식품낭비와 쓰레기 문제	3.57	3.69	4.10	3.70	3.0272**	3.71
	간식만들기	3.79	3.53	3.76	3.52	1.3543	3.66

구분	세 부 항 목	여고생	남고생	남녀공여	남녀공남	F 값	전체평균
의 생 활	섬유의 종류	2.67	2.70	2.82	2.70	0.2552	2.71
	실과 옷감	2.51	2.58	2.71	2.93	2.0781	2.63
	인체생리와 의복	3.08	3.31	3.12	3.40	1.5814	3.21
	의복디자인	2.89	2.90	2.71	3.38	3.1740**	2.94
	옷 만들기	2.22	2.57	2.22	3.02	6.9199****	2.46
	의복의 의미	2.34	2.61	2.49	3.15	7.2385****	2.58
	세탁 및 간수	3.66	3.42	3.76	3.51	1.5535	3.58
	상황과 의복	3.06	3.10	3.06	3.07	0.0316	3.08
	의복의 착용법	3.20	3.28	3.45	3.36	0.6699	3.29
	소품만들기	2.92	2.82	2.94	3.09	0.5297	2.92
	의복구성의 기초	2.57	2.76	2.75	2.91	1.2678	2.71
	의복계획	2.80	2.81	3.00	3.02	0.7346	2.87
	섬유의 혼용을 취급치수의 표시	3.00	3.00	3.28	3.26	1.0279	3.08
주 생 활	기성복의 마름질 바느질 평가	2.52	2.86	2.70	2.89	1.9820	2.71
	주생활의 의의	2.81	3.27	2.96	3.34	4.7725***	3.06
	각 방의 기능과 주택설계	3.16	3.40	3.22	3.34	0.8936	3.27
	건축자재의 선택	2.60	2.86	2.69	3.15	2.7633**	2.78
	주택의 설비와 시설	3.04	3.23	2.96	3.28	1.2562	3.12
	실내장식과 가구의 선택	3.93	3.44	3.73	3.62	4.2336***	3.70
	주거의 의미	2.80	3.09	2.73	3.26	3.6758**	2.95
	지역사회의 특성과 법규	2.73	3.05	3.02	3.15	2.9545**	2.94
	주택시장과 정보활용	3.42	3.43	3.61	3.32	0.7765	3.44
	주택의 관리와 영선	3.23	2.95	3.27	3.26	1.8379	3.15
	생활양식과 주거공간	3.09	3.28	3.32	3.35	1.1937	3.22
	가구배치와 이용	3.74	3.34	3.77	3.55	3.2265**	3.59
	물건정리 수납	3.57	3.21	3.47	3.51	2.1206*	3.43
채광 조명 환기 통풍 온습도 조절	3.50	3.40	3.66	3.70	1.1269	3.52	
직업 생활	직업의 의의	3.36	3.55	3.47	3.65	1.0163	3.49
	직업관	3.63	3.78	3.83	3.83	0.6862	3.74
	진로계획	4.01	4.02	4.22	3.91	0.7485	4.03
	진로선택의 과정	3.92	3.87	4.29	3.89	1.7204	3.96
	가정과 관련된 직업의 세계	3.10	2.93	3.14	3.26	1.3037	3.08
	여성과 직업	3.96	3.11	3.76	3.06	15.6936****	3.52
교양 생활	생활예절	3.77	3.98	4.20	3.61	3.1667**	3.88
	취미와 교양	3.51	3.32	3.68	3.57	1.2173	3.49

소비자 정보의 활용 항목은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대체로 남녀공학의 여학생이 가장 높은 요구수준을 보였고, 다음이 여고생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여학생들이 실제 가정생활에서 실질적인 구매자 및 소비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비해 남학생들의 요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식생활 영역은 기본적인 조리방법과 반찬만들기 항목에서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면서 남녀공학의 여학생과 여고생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질병과 영양, 식품의 가공과 저장, 청소년기의 식습관과 영양문제 및 식품

낭비와 쓰레기 문제 항목에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질병과 영양은 상대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의생활 영역은 전체적으로 낮은 요구수준을 보이는 항목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옷만들기 및 의복의 의미 항목은 대상간에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의복디자인 항목은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목에서는 남녀공학의 남학생들이 가장 높고, 다음이 남고생이 높은 요구수준을 보여서 의생활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간주되어 오던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인 관심도

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 주생활 영역은 주생활의 의의, 실내장식과 가구의 선택 항목은 1% 수준에서, 건축자재의 선택, 주거의 의미, 지역사회 특성 및 가구배치와 이용 항목은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실내장식과 가구관련 항목을 제외하고는 남녀공학의 남학생이 가장 높은 요구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그 외에 직업생활 영역은 여성과 직업 항목이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고생과 남녀공학의 여학생에서 높은 요구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교양생활 영역은 생활예절 항목이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남녀공학의 여학생, 남고생, 여고생, 남녀공학의 남학생의 순으로 높은 요구수준을 보였다. 이 영역의 경우 현재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학생들의 요구수준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인 것은 정규교과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영역이라 할 지라도 실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배우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6. 가정과 교육의 지향점

끝으로 가정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표 11), 재학 중인 학교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고생의 경우 '구체적인 생활지식과 기능을 교육하였으면'이 49.1%로 가장 많고, 다음이 '실습위주의 교육이 되었으면'이라고 하였다. 남고생의 경우에는 '실습위주의 교육이 되었으면'이 37.5%로 가장 많고, 다음이 '청소년 선도교육이 강화되었으면'과 '구체적인 생활지식과 기능을 교육하였으면'이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런데 남녀공학의 경우에는 '실습위주의 교육이 되었으면'이 40%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구체적인 생활지식과 기능을 교육하였으면'으로 나타났다<sup>10)</sup>.

10) 이에 대해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는 '실습위주의 교육이 되었으면'이 43.2%로 가장 많고, 다음이 '청소년 선도교육이 강화되었으면' 20.3%였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구체적인 생활지식과 기능을 교육하였으면' 53.1%, '실습위주의 교육이 되었으면' 25.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chi^2$ 검정한 결과 두 집단간에 0.1% 수준에서

<표 11> 가정과 교육의 지향점

내 용	N(%)			
	여고생	남고생	남녀공학	계
실습위주의 교육이 되었으면	29 (25.9)	36 (37.5)	38 (40.0)	103 (34.0)
올바른 가치관형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되어야	8 ( 7.1)	15 (22.9)	13 (13.7)	36 (11.9)
구체적인 생활지식과 기능을 교육하였으면	55 (49.1)	22 (22.9)	36 (37.9)	113 (37.3)
청소년 선도교육이 보다 강화 되었으면	20 (17.9)	23 (24.0)	8 ( 8.4)	51 (16.8)
계	112 (100.0)	96 (100.0)	95 (100.0)	303 (100.0)

$\chi^2 = 23.5069$  \*\*\*  $df=6$  \*\*\*  $P<0.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정과 교육을 남녀 고등학생 모두에게 필수적인 교육과정으로 인식시켜 가정과 교육의 이수대상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여고생, 남고생, 남녀공학의 남녀학생 등 가정교과목을 이수한 적이 있는 여학생과 이수한 적이 없는 남학생을 모두 포함하여 그들의 가정교과목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인지 및 세부 교과영역별 요구수준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가정교과목에 대한 관심은 남고생에 비해 여고생과 남녀공학에게서 더욱 높았으며, 학생이 어느 학교에 재학중인가에 따라 가정교과목에 대한 관심정도에 차이가 나타난 결과로부터 단계적으로 남학생을 가정교과목 이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즉 기존의 이수대상인 여학생 외에 남녀공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에게 시험적으로 실시한 다음, 점차 남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까지 확대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남학생들 중에도 관심을 보이는 학생이 상당수 있는 것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남녀가 함께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앞으로의 가정과 교육은 남학생의 흥미나 관심을 포함하여 이론습득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가정교과목의 목표에 대해서는 '가정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가정생활'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생활'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chi^2$ 검정한 결과 두 집단간에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활 및 가족에의 올바른 가치관 함양'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가정교과목을 실습교과목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정서적인 면을 강조하는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지므로 앞으로 가정과 교육과정 구성의 새로운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가정교과목의 학교에서의 이수필요성에 대해서는 학생이 어떤 학교에 재학 중인가에 따라 그 인지정도가 매우 차이있게 나타난 점에서 가정교과목의 이수대상 범위설정 시 역시 단계적인 확대실시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안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수할 필요가 없다는 학생도 다수 있는 점은 실제로 학교에서의 가정교과목은 가정생활을 통해 배우는 것과는 달리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정생활이 가정교과목 내용을 전부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야기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가정교과목의 세부영역과 대상학생의 가정적 특성변수와의 관계에서는 아버지의 직업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 즉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변수 및 직업유무, 그리고 가족수 변수가 의생활 영역을 제외한 다른 영역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가정환경이 대상학생들의 가정교과목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학교의 종류별 및 성별을 묶은 대상별로는 가정교과목에 대한 요구도는 100점 만점 중 52.8점 정도로 상당히 낮은 편이었고, 남녀공학의 여학생이 가장 높은 반면, 여고생이 가장 낮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같은 여학생이라 할지라도 가정교과목에 대한 교수내용 및 방법에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세부영역별로는 대상간에 소비생활 영역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차이가 크고, 다음이 아동발달과 부모역할 영역으로 나타났는데, 조사대상 고등학생들은 건강관련 항목, 직업관련 항목과 소비생활관련 항목에 대한 요구수준이 비교적 높았으며, 의생활 영역에 대한 요구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실제 현행 교과내용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생활예절은 전체학생의 요구수준이 비교적 높고 대상학생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게 나

타났는데, 이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바라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가정교과목 교육내용에 대한 대상 학생들의 바램을 파악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가정교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가정교과목을 이수한 적이 없는 남학생들에게서 실습위주의 교육을 바라는 의견이 많게 나타난 점에서 대상학생의 흥미나 관심 고양을 위해서는 직접 실습하고 체험해 보도록 하는 교육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 결론에 근거하여 앞으로의 가정교과목 교육의 방향을 제언해 보면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행해져 온 의식주 해결을 위한 기술적, 물리적 측면, 즉 식품 가공 및 조리 부분이나 옷만들기와 같은 노동생산적 및 제조적 측면 보다는 상품화된 자원의 현명한 구매요령과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선택 및 의식전환에 관한 측면, 영양과 건강과의 관련이나 레크레이션 측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보건위생적 측면, 그리고 가정과 관련된 직업생활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과내용 지도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른 관심을 배려하면서 평등하고도 바람직한 남녀평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따라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가정과 교육방법에 대한 흥미 및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매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생활예절과 같이 실생활에 직접 응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서병숙 외 6인 (1989), 고등학교 가정, 동아출판사.
- 성화경(1994), 중·고등학교 가정과목 의생활 분야 교육내용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6(1), 61-72.
- 신현자(1991), 가정학습을 통한 남중생의 가정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온성숙·이전숙(1992), 중학교 남학생에 대한 가정과 교육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4(1), 31-41.
- 유송옥 외 7인(1991), 고등학교 가정 교학사.
- 이강분, 최목화(1994), 가정교과 주생활 단원에 대한 남녀 중학생의 인식과 활용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6(2), 59-71.
- 이애숙(1994), 한국의 가정과 교육,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6(1), 115-119.
- 이연숙(1994), 중·고등학교 학생의 가정관리 교육 내용에 대한 학습요구도와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6(2), 1-12.
- 이은정(1992), 중학교 가정과교육에 대한 인식 및 교과영역별 필요도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희·이옥임(1994), 가정과 교수법. 수학사.
- 이종이(1995), 중학교 가정과교사의 가정교과 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련변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애용·윤인경(1994), 고등학교 남학생에 대한 가정과 교육의 필요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6(1), 73-92.
- 정영숙 외 6인(1994), 가정학계열대학의 발전을 위한 연구,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 황선화(1994), 중학교 가정과 학습내용에 대한 예비중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